##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 신행선사 '心燈'

선사의 속성은 김 씨, 법명은 신행(神行 : 이명은 信行)이다. 경북 경주에서 아버지 상근(常勤:왕족으로서 급간(級干:17등급의 관리))의 아들로 성덕왕 3년(704)에 태어났다. 또한 선대의 고승인 안홍 대사(安弘大師)가 선사의 종증조부이기도 하다.

선사는 부친의 영향으로 유학을 수학, 벼슬의 길로 가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30살(성덕왕 32년)에 선(善)을 쌓고 마음을 닦는 곳으로 마음이 정해졌다. 그 해 선사는 운정 율사(運精律師)를 은사로 불문에 들었다.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던 선사에게 운정 율사는 청도 호거산에 주석하고 계신 법랑 선사(法朗禪師)를 찾아 법을 구할 것을 청한다. 이에 선사는 운정 율사 문하에서의 2년간의 공부를 접고 법랑선사를 찾아 떠난다. 그리고 용맹정진 3년이 되는 어느 날 법랑선사는 선사에

## "삶이란 바람앞의 촛불이니 부처님의 지혜 닦아야 해탈"

게 물었다. "우주의 법칙은 무엇인고?" 이에 선사의 마음에 등불이 켜졌다.

心燈(심등)
徹言宴應(미언연응)
卽心無心(즉심무심)

부처님의 미묘한 말씀 그윽이 통하는 것이나,
마음은 항상 즉해 있으면서도 본래 없는 것이다.

선사의 깨침은 작은 티끌도 어그러뜨리지 않고 팔만경전을 다 통달하였으며, 한치도 펴지 않고도 두루 백억(百億)의 불토(佛土)에 상승(上乘)되었다.

깨침의 자성은 항상 바다 깊은 곳과 같이 진공(眞空)의 그윽한 향적(香積 : 향발지반(香鉢之飯), 향적세계(香積世界)의 뜻으로 즉 향반(香飯)으로 누구나 그 밥의 향기만 맡으면 곧 삼매를 증득한다는 뜻)은 선천(禪天)하였다.

스승께서 입적하자 선사는 그의 깨침에서 말했듯이 "수많은 중생들에게 삶이란 바람 앞의 촛불이며, 죽음이란 물거품인 것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야 해탈 할 수 있다"고 중생들을 교화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경의 가르침과 관법을 숭상하였으므로 선사의 무위임운(無爲任運:參禪)에 모이지 아니하였으며 선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했다.

선사는 뜻을 펼 수 없기에 오로지 불법을 천의불석(天衣拂石 : 반석의 넓이와 높이가 각 40리 되는 큰 바위를 천인이 100년마다 한번씩 지나가면서 가벼운 옷자락으로 스쳐 이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동안의 긴 세월을 말한다)하기 위하여 푸른 물결을 타고 중원 땅을 밟았다.

지공 선사(志空禪師) 회상에 나아가 법을 구하였다. 3년 만에 지공께서 비로소 마음을 열어 현주(玄珠 : 심인(心印)을 전(傳)함, 즉 인가를 해주었다는 뜻)하였다. 지공은 선사에게 천간빈집에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의 하수(河水)에 선정(禪定)의 물을 모이게 하여 삼매의 밝은 등을 전하였다.

선사의 깨침은 삼달(三達:천안통(天眼通), 숙명통(宿命通), 누진통(漏盡通)을 말함)로서 후에 도의 선사(道儀禪師)가 서당(西堂)에게서 법을 전수 받고 선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릴 수 있도록 메마른 대지에 물을 뿌려 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신라에 돌아온 선사는 수많은 대중을 제접하였는데, 초발심자에게는 마음을 살피라는 한마디 말로 가르치고, 불법의 진리에 깊이 수행한 사람에게는 법(法)의 문(門)을 열어 보여주었다.

선사의 가르침은 많은 중생들의 마음에 법(法)의 물을 대고, 마음 밭에 도(道)의 싹을 길러서 길이 애욕의 진흙 속에서 벗어나와 다함께 열반(涅槃)의 언덕에 올라가자고 가르쳤다.

선사의 몸은 땅처럼 오래가고 혜명(慧命)은 하늘처럼 길기를 바랬는데, 76세 혜공왕 15년(779)에 남악(南岳:지리산) 단속사에서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었고, 땅이 흔들려서 만물이 이로 인해 시들었으며, 샘물이 마르더니 마침내 선사께서 입적하였다.

## 가까이서 뵌 큰스님

# 수산스님

영광 불갑사 조실

# "말과 행동 둘 아니면 성불"

"근대의 대 선지식 만암 스님과 같은 분이라고나 할까요"

수산(壽山)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전남 영광군 불갑사를 향해 가는 5시간 내내, 수산스님이 어떤 분이냐는 기자의 전화 질문에 위와 같이 한마디로 표현한 불갑사 주지 만당스님의 말에서 뵙기도 전에 스님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백제불교 초전지 모악산 불갑사의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지나 종무소를 찾았다. 수산 스님께 기별을 넣기 위해서다. 잠시 후 대웅전 왼편에서 노스님 한 분이 걸어오시더니 자상하게 물으신다. "어디서 오셨다고? 더운 날씨인데. 우선 내 처소로 갑시다."

스님을 좇아 스님이 30여년 가까이 주석하고 계시다는 염화실로 들어섰다. 잠시 후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이 들어오셔서 합석했다. 만당 스님은 수산 스님의 상좌이다.

"부처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언행일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과 바른 생각 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는 자못 어려워요. 실천이 없는 것은, 제법 올창해 보이지만 목재로 쓸 수 없는 아카시아 나무만 가득찬 산과 다를 게 없어요."

수산 스님은 불자의 첫 도리로 언행일치를 강조하셨다. '언행일치' 이는 스님의 스승이셨던 만암 스님이 가르침을 청하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기도 하다. 수산 스님이 1938년 백양사에서 출가했는데, 이때의 만암 스님의 가르침 역시 언행일치 하라는 것이 첫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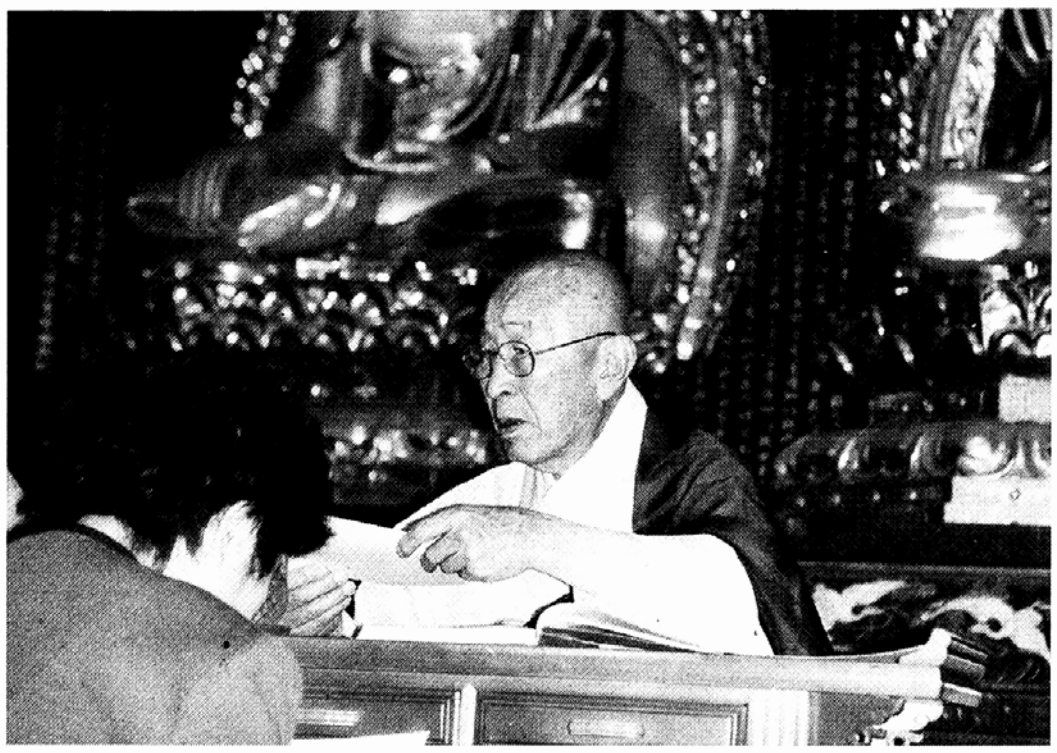
"부처님의 제자라면 모름지기 삼독심과 번뇌를 버리도록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하고,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생사 문제도 여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유자재한 도리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중생의 몸으로 남게 되는 거지요."

수산 스님의 평소 생활은 늘 활기로 가득하다. 스님은 지금 꼭 세수 여든이 되셨지만 게으름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몸과 마음으로 익힌 것을 삶 속에 끊임없이 투영시키고 있는 스님은 제자들에게 자상하면서도 엄격하게 늘 가르침을 실천으로 행해 모범을 보이신다.

예를 들어 스님은 대중들과 격을 두지 않고 공양을 한 상에서 하신다. 또 봄이면 산나물을 캐기 위해 고령에서 불구하고 모악산 구석구석을 다니신다. 새벽 예불을 거르지 않고 '이 뭣고' 화두를 챙기는 스님의 일상은 늘 불갑사 대중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번은 "조실 스님이시니 공양 자리를 따로 만들겠다"는 불갑사 사중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단호하게 물리치셨다 한다.

"여기에 입이 나 혼자가 아니다. 입은 다 똑같다. 노소를 막론하고 입은 다 똑같으니 나물죽 한 그릇이라도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나 혼자만 좋은 것 먹으면 되겠느냐"



◇지난 3월 광주 관음사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수계의식을 주관하고 있는 수산스님.

> "죽을때 뭘 가져가나 돈-명예-이름 아닌 오직 공덕 뿐입니다"

스님은 힘들게 공부하셨기에 요즘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환경에서 젊은 사람들이 왜 공부에 등한시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하신다. 도리어 너무 풍족한 것이 때로는 마가 될 수도 있으니 수행자라면 풍족한 환경에 좋아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요즘에야 행자들에게 처음부터 공부를 가르치지만 내가 출가했던 30년대만 해도 행동이 먼저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지요. 행동 하나 보고 중을 만들기도 하고 그만 가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출가했다고 해서 바로 머리를 깎아주지도 않았지요. 나 역시 머리를 수건으로 질끈 동여맨 행자로 5년 정도를 하심하는 온갖 일로 보내고서야 머리를 깎았습니다."

만암스님에게 〈법화경〉, 〈금강경〉 등을 공부했고 시봉도 많이 살았다. 특히 꼼꼼하게 일을 잘 하고 성실한 수행 생활을 하는 수산 스님을 흡족해 한 만암 스님은 자주 수산 스님을 곁에 데리고 있으려 해 스님은 선방에 있다가도 만암 스님 곁으로 돌아오곤 했다.

만암 스님은 평소와 같이 저녁 공양을 마치고 서옹 스님(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과 차를 마시다가 열반에 드셨다. 스님은 마치 헌 옷을 벗듯 육신의 탈을 자유로이 벗어버렸다.

만암 스님의 입적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수산 스님이 이를 자주 주위에 상기시켜 주는 이유도 생사불이의 대자유인의 참모습을 좇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다른 이들도 대자유인의 그러한 공심(空心)을 따랐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수산 스님이 불갑사를 찾아온 불자들에게 자주 "법회에 찾게 한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까닭도 '공심'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스님은 "법회를 찾게 한 그 마음자리는 형태가 없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마음자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마음이란 본래 형태가 없어, 삼라만상을 삼켰다가 뱉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형체가 있다면 그것을 삼키지 못하죠. 그런 마음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꼭 소유하고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후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쳐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 육임(래정비법)설명회 안내

「육임래정비법」 (온 사람의 사정을 미리 아는 법) 값 삼십오만원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내용을 소상히 판단하는 법) 값 일십만원
「육임대요형이상법」 (귀신 · 산소탈 · 빌미 · 부정병 · 일의 되는 날자 판단 법) 값 일십오만원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운명감정을 정확히 할수 있는 법) 값 일십만원

위 내용의 설명을 다음 각 장소 · 시간에 실시하고 있사오니 위 책을 구입하신 활인 · 천역자 제위께서는 이 중 마땅한 장소를 골라 참석하여 더욱 밝은 활인 · 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고복자 철학박사 효사 배상

장소 및 시간

(수강료는 없습니다.)

- 서 울 광토원(매주 토요일 오전11시~오후4시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49 알심빌딩 401호(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 출구, 강북구청 좌측 옆건물) TEL : 02-993-8680
- 부 산 해장식탐(매주 일요일 오전10시~오후3시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동 1129-2(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건너편) TEL : 051-781-2669
- 대 구 보리암 신원(매주 월요일 오후2시~5시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49-1(영대병원 지하철 암산출구 새한약국 뒤편 2층) TEL : 053-653-0287
- 광 주 광주시 동구 학1동 동사무소 2층 희의실(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까지)
- 전 주 원각정시 (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까지) 전주시 경원동 2가 43-3(구 강기전 뒤 제세한의원 2층) TEL : 063-284-7714
- 수 원 수원시 팔달구 지동 319-4(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반야원 철학원 (기동제일교회 맞은편) TEL : 031-242-8813
- 청 주 동인당 한약방(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청주시 상당구 오암동 378-4(동부건설서-MBC 사이) TEL : 043-221-2557
- 원 주 노검철학원(매주 금요일 오후5시~8시까지) 원주시 봉산동 쌍다리(경찰서 앞)진 한약방 2층 TEL : 017-377-7005
- 인 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92-4 종호철학 컨설팅(인천시 지하철 1호선 박촌역하차 2번출구에서 전화요망) TEL : 032-554-3789
- 충 주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금강시(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까지) (판금대 큰 다리에서 150미터 지나서 금강사 이정표가 있음) TEL : 043-842-3352
- 대 전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0-8 대영회관 3층 양부건설사무실 (매주 화요일 오후6시~9시까지) (갑천 태평교 동영주요소 옆) TEL : 042-584-1709

위 책 구입 및 설명회 문의전화 : 02-993-8680

입 금 구 좌 : 한 빛 은 행 066-475024-02-001 김 나 여